

[HOME](#) > [문화·엔터](#) > [라이프](#)

'공부보다 사람' 송도 SAC시스템학원 박승국 수학원장, 인성으로 가르치다

✎ 김동열 기자 | Ⓞ 승인 2025.10.20 13:22

- 추석 당일, 갱이부리마을 어르신 찾아 '마음의 교육' 실천



송도수학학원 SAC시스템학원 박승국 수학원장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자를 지향하며 “인성이 곧 학업의 뿌리”라고 말한다.

실제로 여러 교육학 연구에서도 인성교육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학습(SEL)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출처: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2012 / Durlak et al., 2011).

박 원장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교실 안에서 실천해야 할 이유”로 꼽는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라며, “공부의 의미를 스스로 찾게 돕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추석 연휴, 박 원장은 무료특강을 진행하기에 앞서, 책상 대신 현장을 선택했다. SAC선생님들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민생지원금과 후원금을 모아, 인천 내 가장 오래된 판자촌 ‘괭이부리마을’을 방문했다. 추석 당일, 갈 곳 없어 집에 머물던 10여 가구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라면, 송편, 한과, 비상상비약, 용돈을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이 장면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직접 영상을 제작해 학생들과 공유하며, 배려와 공감의 의미를 느끼게 하였다.

박 원장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생(先生)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자세는 전인 교육의 토대가 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는 앞서 ‘2025 교육부문 대상’ 시상식 소감과 부합한다.

영국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2012) 보고서에 따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취 향상을 보인 바 있으며, 미국 CASEL 기반 메타분석 연구(Durlak et al., 2011)에서는 213개 학교 프로그램, 약 27만명 학생을 분석한 결과, 사회·정서학습(SEL)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대조군 대비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성과 학업 성취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를 북돋우는 관계임이 확인된다.

박 원장은 “공부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며,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인성은 가슴에 남기에, 학생들이 배운 수학공식을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도구로 쓰며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SAC시스템학원의 철학이 담긴 실천이다. SAC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 ‘따뜻한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논문 출처

1.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2012). Character and Attainment: Does Character Make the Grade? University of Birmingham.

2. Durlak, J. A., et al.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김동열 기자

저작권자 © E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